

북구, 탄소중립 우수성 인정...호남 유일 장관상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북구가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은 모습 /광주 북구청 제공

신재생에너지 확산·마을별 탄소중립 사업 추진

평두메습지 활용 등 탄소중립 정책 우수성 호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3일 북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한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및 기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이행 실적과 협력 사례를 부문별 평가 항목에 따라 적정성,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북구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먼저 27개 동 220개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태양열시스

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또 북구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특화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었다.

지역 내 생태자원 보존에도 행정력을 기울였다. 광주 유일 랍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환경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 시민과학 생태학교 등 평두메습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광주 자

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는 등 북구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호남권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게 됐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와 일상 속 행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남구, '변화·미래' 담은 행정조직으로 개편

민선 9기 구정 비전 실현, 7국 2실 2관 33과
국가 정책 대응력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민선 9기 구정 비전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남구는 11일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존 6국 2실 2관 31과 체제에서 7국 2실 2관 33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행복한 복지, 활기찬 경제, 으뜸호 남구'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면서 국가 정책과 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서별 기능과 업무를 면밀하게 살펴 유사·중복 기능

을 조정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등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했다.

먼저 신설하는 으뜸효돌봄국은 돌봄과 복지 기능을 분리해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도시농업과와 공공시설과는 농업정책과 유통, 반려동물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및 비기술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 새롭게 꾸리는 소상공인팀과 골목상권팀, 골목비엔날레팀 등 7개 신설팀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골목형 상점이 활성화, 문화예술

축제의 브랜드화 및 체계적인 축제 추진 등 남구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중단 없는 남구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산업전략과를 미래산업담당관으로 재편했으며, 민주평화인권과 소속 2050행복정책팀과 주민인권소통팀을 '행복소통팀'으로 통합하는 등 7개팀을 조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했다.

남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에 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민선 9기 주요 공약과 여전 사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9기 구정 방향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라며 "남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복지와 돌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해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관련 기능도 보강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축제와 지역 콘텐츠를 연계해 남구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미래산업 분야 역시 전담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과 기능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남구청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제26회 곡성심청

어린이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6. 10. 8 (목) - 11 (일) 곡성심진강기차마을

